

국내 명저의 허와 실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앞둔 우리의 현실

조 우 석 · 본지편집위원

FRANKFURTER
BUCHMESSSE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가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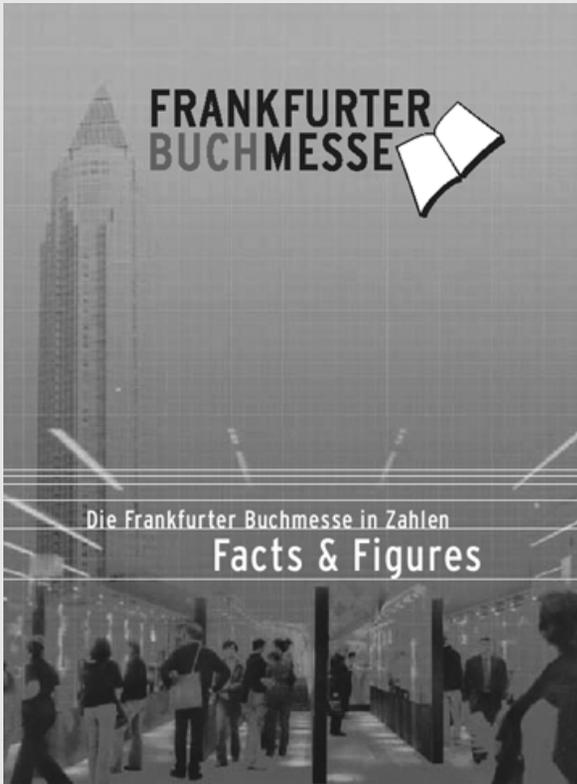
위창 오세창의 저술 『근역서화징』은 당연히 한국서화사 분야의 명저다. 그걸 의심할 사람은 없다. 54세 때인 1917년 위창이 역대서화작품을 시대별·작가별로 분류한 끝에 거둬 들었던 열매가 『근역서화징』이다. 몇 해 전 시공사를 통해 하드커버 본으로 재단장돼 선보이고 있는 이 책은 그러나 양면성을 갖는다. 한국문화사의 핵심 저술이지만, 해외에 한국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서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우선 인명을 포함한 분류 사전이란 짜임새부터 걸린다. 일관된 서사구조를 갖지 못한 토막 정보의 나열이고, 때문에 툭툭 끊긴다. 생각해 보라. 유럽의 일부 한국학 연구자들이 아닌 보통의 서구독자들에게 암호와 다를 바 없는 『근역서화징』을 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숫제 고문일 것이다. 결정적으로 보편적 구조를 못 갖춘 점이 아쉽다. 지구촌 독자들에게 동시대 미술사 전개를 염두에 두고 읽어 보라고 하기에는 영 무리가 있다.

따라서 『근역서화징』은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두 거대 국가 사이에 낀 '동아시아의 먼나라' 한국의 문화를 담은 책으로 내놓기에는 적절치 않다. 유감스럽다. 한국의 명저와 한국문화의 소개서란 이 둘 사이의 묘한 이종성은 그만큼 크다 할 수 있다. 필자의 개인적 견해만은 아니다. 실은 2005년 10월 독일에서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참가를 계기로 선정한 '한국의 책 100'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했던 부분이다.

이 얘기를 꺼낸 것은 국내 명저의 허와 실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필자가 선정위원회 멤버로 참여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기억하시겠지만 3월 초 문화관광부를 통해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대비 한국의 책 100'이 발표된 뒤 일부 언론을 통해 '한국의 책 100'이 대표성에서 떨어지고 명저 기준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학의 경우 핵심작가가 누락됐다는 말도 나왔다.

알고 보면 그것은 허공에 매질을 한, 코미디 수준의 비판이다. 본디부터 '명저 100'이라는 컨셉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인가? 국제도서전이라고 하는 한시적 이벤트



2003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를 염두에 둔 홍보서적의 선정이란 의미가 전부였었다. “한국의 책 100은 한국이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으로 초청된 것에 대비하여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가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해외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들을 선정하여 우리 문화를 홍보하려는 사업이다”

보도 자료의 앞머리가 그 점을 확인해 주고 있지 않은가. 또 한 국가의 지적 저작물에 100등까지 순위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중요한 것은 그런 시비곡절의 확인이 아니다. 내년 10월 코앞으로 다가온, 한국이 주빈국(테마국가)으로 참가하는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상식이지만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문화 월드컵이다.

일본이 12년 전 이 도서전 주빈국을 치러낸 뒤 일본문화를 보는 서구의 시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던 것을 봐도 그렇다. 우리가 주빈국으로 도서전에 참가하는 것은 좋은 기회다. 국제도서전 기간 동안 운용될 무려 2,700평이라는 공간을 통해 한국문화를 훌륭하게 알릴 경우, 그리고 내년 초부터 독일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는 1천여 건의 문화행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경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대단하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인 스시(생선회)가 불티나게 팔리고 고급음식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하는데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갖는 경제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를테면 도서전을 기회로 현대차가 두 배 이상 판매를 올리고, 삼성 반도체와 LCD화면 판매량도 크게 늘릴 수 있다. 도서전을 국가 전략의 이벤트로 끌고 가야 한다는 판단은 여기에서 나온다.

사실 100여 개국에서 약 1만개의 출판사가 참여하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어떻게 한국의 문화역량을 올인(all in)할 것인가는 별도로 검토되어 벌써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지난 1백년 모더니티 속에서 생산된 한국의 지적 저작물의 빛과 그림자를 훑어보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즉 ‘한국의 책 100’ 선정을 계기로 지난 1백여 년 근현대 과정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이란 잔치는 잔치대로 훌륭하게 치르자. 중요한 것은 이 국제 이벤트를 계기로 일방적인 지식과 문화의 수용국가에서 문화발신국으로의 발돋움을 겨냥해 볼 일이다. 막연한 제안이 아니다. 해외 도서전을 돌며 막연한 감으로 계약이나 남발하고, 인터넷 아마존을 사풍하면서 그 쪽의 베스트셀러들을 마치 로또하듯 찍어서 번역하는 것을 출판과 기획의 관행으로 알아온 구조를 부분적이거나 험파해 보자는 제안이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전시 부스 내부

에서 산출해 낸 한국의 저술들이 얼마만큼 독자적인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가를 글로벌한 잣대를 들이대며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즉 한글이라는 문자로 된 책에 담겨진 지식과 문화의 켈리타를 이 기회에 재보자는 것이다. 당연히 그 문제의식은 현재 독서시장에서 유통되는 단행본들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 이어져야 한다. 동시대 지구촌의 독자들에게 “이것이 한국문화의 실체입니다”라고 권유할 수 있는 단행본을 한국사회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가늠해 보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현행 출판계의 앞과 뒤도 함께 성찰해 보자는 얘기가.

국내 출판계의 빈약한 현실

한 나라의 사유체계와 철학의 독창성과 엄밀함, 그것이 만들어 낸 성취를 확인하려면 사상과 철학 영역이 우선이다. 『선비의 나라, 한국의 유학 2천년』(강재인), 『유교 담론의 지형학』(이승환) 등 이번 ‘한국의 책 100’의 한국사상 분야에 선정된 10여 권의 책 중에서 아쉽게도 우리가 원하는 맞춤도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누구 말대로 선정위원회가 졸속 선정을 했기 때문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우선 유학·유교 영역에서 이거다 싶은 책 자체가 드물다. 학문적 높이는 그 다음이다. 계몽적 성격의 책이라도 보편적 서술구조 속에서 동서양의 체험을 함께 더듬어 보는 동시대성의 측면이 많이 취약한 것이다. 이 분야의 고

전적 저술로 통하는 몇몇 책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것이다. 좋다. 그러나 실은 그 책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유학·유교 영역의 근역서화징’이다. 『근역서화징』과 같이 국내용인 것이다.

유학·유교야말로 한국의 핵심 문화목표인데도, 지난 1백년 과정 속에서 생산된 양질의 저술이 없다니... 하지만 그것이 2000년대 초입 한국출판의 현주소다. 따라서 ‘한국의 책 100’은 박하게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채워진’ 것일 수도 있다. 특정 저술을 집어넣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닌 것이다. 이런 아쉬움은 불교 영역에서도 재확인된다. 보자. 선불교야말로 중국 불교나 일본 불교와는 다른 영역이다. 종단으로서의 불교가 아직도 굳세게 살아 숨 쉬는 나라는 사실 한국뿐이다.

즉 중국의 선불교는 당나라 이후의 활력을 잃어버린 채 기복종교의 수준으로 바뀐 지 오래고, 일본은 ‘학문화된 선불교’를 서구사회에 전파시킨 학자 스즈키 다이세츠의 사례에서 보듯이 ‘문자화된 불교’, ‘활기를 잃은 불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젠’이라는 이름 아래 부는 서구의 불교 바람을 염두에 둔다면 선불교야말로 ‘한국의 책 100’에서 정면으로 다뤄야 할 전략품목이다. 하지만 이 분야의 맞춤도서 역시 많지 않다.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원효), 『선가귀감』(서산) 등 고대와 중세의 원 자료를 ‘한국의 책 100’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

있던 것은 그런 배경이다. 김희성의 『지놈의 선사상』을 포함 시킨 것은 앞서 말한 보편적 서술구조라는 점에 근접한 성취 때문이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런 한계는 거의 모든 분야의 구조적인 한계이다. 훌쩍 건너 뛰어 예술 분과를 검증해 보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영역이 예술서이지만, ‘핑크’가 엿보일 것이다. 일부 신문들의 주장대로 “왜 박경리와 고은의 문학서가 빠졌느냐?”고 물을 게 아니다.

예술 영역에서 백남준과 윤이상은 한국예술의 모더니티가 거둔 큰 이름 두 개이다. 문제는 이 미술작가와 작곡가를 다룬 책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윤이상의 경우 그의 부인이 쓴 전기류인 『내 남편 윤이상』과 독일 소설가 루이제 린저가 썼던 책 『상처받은 용 윤이상』 등이 거의 전부다. 독일 사람들은 윤이상을 독일 작곡가로 아는 판에 이게 무슨 낭패란 말인가. 곤혹스럽게도 그것이 한국출판의 빈곤한 현실이다.

백남준의 경우도 닮은꼴이다. 유치원 친구 이경희의 회고 기록 『백남준 이야기』, 보편성에서 문제가 있는 책들인 『백남준과 그의 예술』(김홍희),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이용우) 등 불과 서너 권이 전부다. 이들을 ‘한국의 책 100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무리다. 하는 수 없이 이들 예술 분야는 책이 아닌 연주회 혹은 미술작품 전시 등의 형태로 해당 부스를 꾸미자는 한 발 빼기식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뻔인가? 앞에 언급한 미술은 물론 음악·연극·무용 분야에서는 차라리 ‘전멸’이라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 때문에 그 분야의 책들은 아예 ‘한국의 책 100권’에서 흔적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을 것 같은 인문사회의 영역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대목에 대한 판단은 순전히 필자 개인의 견해이지만, 『한국 1950 - 전쟁과 평화』(박명림), 『민중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 등 정말 극소수의 책을 제외하고는 글로벌한 기준을 만족시켜 주는 도서가 정말 많지 않다.

문화 수용국에서 문화 발신국으로

사실 국내 출판물의 질적 수준은 서로간에 익히 아는 얘기일 수 있다. 개항 이후 지난 100년이란 것이 실은 서구문화 수용사 혹은 이식의 역사에 다름 아니었다. 독자적인 모더니티의 창출에서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문학을 포함해 건축·미술·음악·무용 등 장르를 불문하고 사정은 그토록 빈곤한 것이었다. 국내의 학계와 문화계, 그리고 출판사들이 그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고, 굳이 그렇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1980년대 초부터 대산문화재단·한국문학번역원 등의 지원금을 받아 외국어로 번역된 우리 책은 불과 400여 종. 한류 열풍 덕에 중국어로 번역된 드라마 대본 번역까지 몽땅 합해도 13개 언어 1,600여 종에 불과하다. 이것이 지적 저작물 중 해외에 수출된 규모의 윤곽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적 저작물들은 아직도 자생력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역부족인 국면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주소인 것이다.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이란 잔치는 잔치대로 훌륭하게 치르자. 중요한 것은 이 국제 이벤트를 계기로 일방적인 지식과 문화의 수용국에서 문화발신국으로의 발돋움을 겨냥해 볼 일이다. 막연한 제안이 아니다. 해외 도서전을 돌며 막연한 감으로 계약이나 남발하고, 인터넷 아마존을 서핑하면서 그 쪽의 베스트셀러들을 마치 로또하듯 찍어서 번역하는 것을 출판과 기획의 관행으로 알아온 구조를 부분적이거나 혁파해 보자는 제안이다.

지금쯤이라면 한국은 해외에 자랑할 만한 스타급의 작가 내지 필자들을 여러 명 보유하고 있어야 마땅하다. 해외 각국에서 번역하자고 달려들어야 한다. 당장 중남미 문학의 힘을 보라. 따라서 필자의 주문이 무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열패감의 반영에 다름 아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빠져 정당한 출판 산업에 느슨하게 대처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러한 때, ‘한국의 책 100’ 선정은 그 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좋은 계기였다. ✎